

‘함께, 오월을 쓰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엄수

대선후보 등 2500여명 참석
 문재학·윤상원 열사 등 조명
 518번 버스 따라 의미 공유
 기념사 ‘헌법 수록’ 언급 없어
 ▶관련기사 2·3·4·5·6·7·8·9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등이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올해 기념식은 비상계엄과 내란, 조기대선의 한복판에서 ‘5월 광주’를 다시 새기는 등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념사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보름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3개 정당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여는 공연, 기념사, 기념 영상, 대합창,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약 45분간 이어졌다.

여는 공연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를 주목했다.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

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삶도 고인을 기억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조명됐다.

대통령 권위에 국무총리도 공격된 상태에서 치러진 기념식에서는 이주호 권한대행이 기념사를 낭독했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며 ‘통합’

을 강조했다. 다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념 영상에서는 518번 시내버스를 따라가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5·18의 의미를 공유했다.

전남대에서 민주묘지까지 광주 곳곳 5·18 역사 현장을 잇는 버스는 70여개 정류장을 경유하고 한 차례 운행 시간만 120분에 이른다.

대합창에서는 광주시립합창단과 나주시립소

년소년합창단이 1980년 광주의 오월처럼 통합과 화합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함께 걷는 길’을 노래했다.

기념식의 마무리 식순인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옆 사람의 손을 맞잡고 앞뒤로 흔들거나, 움켜쥔 주먹을 흔들며 한목소리로 오월의 노래를 불렀다.

이 권한대행 등 정부 인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3명의 대선 후

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 인사 모두 제창을 함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움켜쥔 오른 주먹을 들어 올려 흔들었다.

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매해 광주 북구 언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돼 왔다.

정근산 기자

금호타이어 대형화재 이틀째...오늘 중 완진

생산 전면 중단...유해물질 불검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19일 오후로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6·19면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직원 1명과 소방관 2명이 다치고, 직원 400여명이 대피해 타이어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불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령 공정에서 발생했고, 생고무를 예열하는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현재까지 2공장 부지 면적 중 50%가 소실됐고, 공장 내부의 인화물질은 모두 제거한 상태다. 당시 대형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와 유독 가스가 확산하면서 인근 거주민 일부가 대피했고, 다행히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3시 기준 화재 진화율은 95%로, 소방당국은 19일까지 완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연기는 불을 모두 끄더라도 2~3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화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이사는 이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모든 과정에서 협조하

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화재 진화 상황과 유해화학물질 확산에 대비한 대기질 측정 등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고 대행은 “화재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소방, 경찰, 산림, 군 등 관계기관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할 환경청과 지자체는 유해화학물질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환준 기자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전라남도

전남 관광의 모든 것을 담다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

EVENT 1 남도숙박할인 BIG 이벤트

숙박할인쿠폰
최대 12만원할인(3박)

EVENT 2 블루투어 1+1 이벤트

해상 케이블카, 오토 등
체험티켓 1+1 최대 50% 할인

더 많은 전남 여행, 할인 정보는 JN TOUR에서 만나보세요!